나주시 도심 속 가족축제 함께해요

16일 빛가람 호수공원 야외무대
가정의 달 다채로운 프로그램
수소 로켓·보틀램프 등 체험부스

"빛가람호수공원에서 가족 축제 함께해요."

나주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도심 속 가족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오는 16일 빛가람 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2025 나주시 가족 축제'는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나주시가 주최하고 나주시가족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 가족, 5월에 친해 봄! 함께 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나주시립합창단의 공연과 태국 전통춤 등 문화 공연, 행복(모범)가정상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10여 개의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디지털·미디어 버스와 수소 로켓, 양말목 카네이션, 보틀램프 등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가족생애주기 '임산부&노인체험'은 가족 간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기념식 후에 '가족 골든벨'이 운영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오후에는 도심 속 '캠크닉(캠핑+피크닉)' 분위기 속에서 야외극장에서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상영해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 관한 자세한 세부 일정은 나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나주시 가족아동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가족 축제를 통해 가족 간의 소중함 시간을 함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열정의 무대 신나는 관객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의 주요 행사인 '장성 뮤직 페스티벌'이 지난 10일 황룡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국카스텐, 카더가든, 유다빈밴드, 범키, 연정, 리제, 이종민 등 7명의 뮤지션들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장성군 제공〉

함평군 '고향올래' 공모 선정
문화자원 활용 등 20억 확보

함평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고향올래(GO鄕 ALL來)'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소재 65년 된 전통가옥을 활용해 2026년까지 생활인구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인문학 중심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인문학 강좌를 운영 중인 '호접몽가'를 중심으로, 전통음식 체험(매동포레스트), 도예 공방(자기바라기) 등 대동면 내 문화 자원을 활용하며 도시와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규모 커뮤니티 운영과 지역민과의 교류 활동 등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방문객이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장흥군, 6년만 증가세 전환후 두 달 인구 증가
올 출생아 50명으로 크게 늘어

장흥군 인구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장흥군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군 인구는 3만 4322명으로 전월(3만 4319명)에 비해 3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8명의 인구 증가로 6년 3개월 만의 증가세 전환에 성공한 이후 두 달 연속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올해 1~4월 장흥군 관내 출생아 수는 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명)보다 증가했다. 또 3월과 4월에는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를 크게 웃도는 등 인구의 사회적 증가 현상도 뚜렷했다.

이 같은 인구 증가의 배경에는 장흥군이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맞춤형 인구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주목할 만하다.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줄인다.

지역 기업체 및 공공기관 근무자, 귀촌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전입 유인책도 눈에 띈다.

이 외에도 장평면 임리에 조성된 농산어촌 유학마을은 인구 유입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바이오식품 산단 분양률 70%를 달성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인구 문제 해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출산, 양육, 학령인구 및 청년 지원, 주거,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맞춤형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벨문학도시 장흥이 매력적인 정주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에 조성된 임대형 스마트팜 외관. 내부에는 자동 양액공급 시스템과 복합환경제어시설이 설치돼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입주자 모집
20일까지…18~45세 2명

강진군이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를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팜 기술 습득과 영농 기반 조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강진군의 대표적인 청년농 유입·정착 프로젝트다.

모집 대상지는 강진읍 송전리 762-5 일원에 조성된 내재해형 스마트온실 2개 동으로, 온실 1개 소당 1200㎡ 규모이며, 입주 대상은 만 18세부터 45세 이하(1980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청년 2명이다. 모집 작목은 고수익 품목으로 꼽히는 딸기이며, 독립 경영 예정자 또는 3년 이하 경력의 청년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관외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종 선정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 전까지 강진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자동 양액 공급 시스템, 공기열 냉난방 시스템, CO_2 발생기 등 복합 환경 제어 설비가 완비돼 있으며, 입주자는 단순 임차인을 넘어 스마트팜 기술을 실전에서 습득할 수 있는 실험적 환경에서 집중적인 영농 훈련을 받게 된다.

최영아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은 영농 초기 청년에게 경험 기반의 실질적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청년농의 성공적인 정착과 강진 미래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순군, 텀블러 사용 최대 7만원 혜택
착한 가게 1회 이용 300원 적립

화순군이 일상 속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며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화순군은 환경부 탄소중립 포인트 인증기업인 ㈜다와의 '반들이' 시스템을 도입해 텀블러 사용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지역 내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화순군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커피퀸, 정항우케익, 리블리, 마실, 별다방, 벌크커피, 에쏠로지, 아임파인커피앤유, 다옴, 부덕커피, 원앤식스, 에그브레드제작소 등 총 12곳을 '착한가게'로 지정했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반들이' 앱을 통해 스티커를 발급받아 텀블러에 부착한 뒤 착한가게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된다.

1회 이용 시 300원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 등으로 적립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ESG 포인트도 추가로 제공된다.

반들이 스티커는 화순군청 환경과(기후변화대응팀) 또는 참여 착한가게에서 배부하고 있다.

화순읍 한 업소에서 카페 텀블러 사용 고객들이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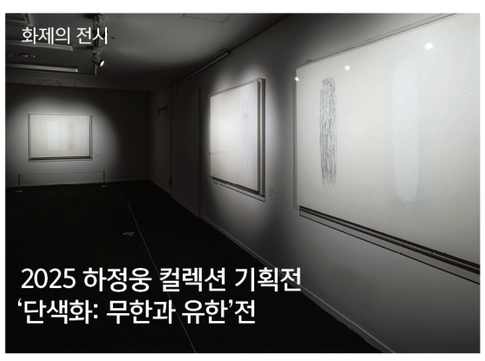
노삼숙 화순군 환경과장은 "개인 텀블러 사용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운동"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5월호

2025년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2025 광주 방문의 해
무등산에 오르다

- 무등산이 낳고 키운 생명과 문화
- 무돌길 위에서 무등의 정신 이어갑니다
- 생명의 춤, 무등산의 봄꽃
- 무등산의 풍경과 서사를 담다: 사진작가 임채욱 '무등산'전



예향 초대석
여성국극 1세대 배우, 발탈 명인
조영숙
"무대에선 눈으로 울어도 입으로는 웃겼다"

우리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⑤
고미술, 현대예술 품은
광산구 최초 사립미술관
광주 광산구 동곡뮤지엄

호남의 누정⑳-에필로그
곧은 선비정신과
풍류를 마주한 시간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⑰

해외문화기행㉘ '예술아지트'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확신,
연상호 '계시록'의 믿음